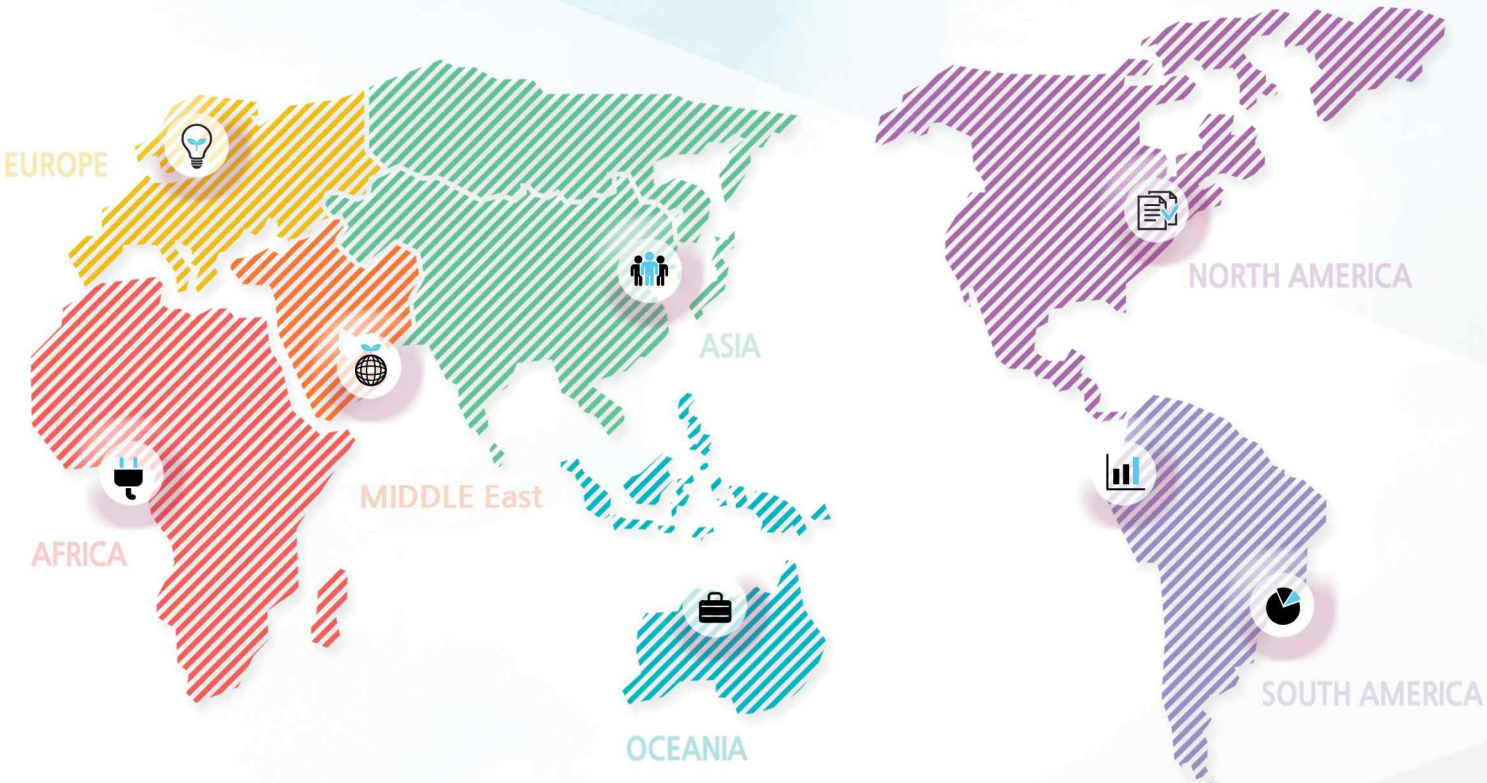
Global Market Report 15-009

2015.02.17



Global Market Report

TPP 협상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Ⅰ. TPP 최근 동향과 섬유산업

1 1. TPP 개요 및 최근 동향

4 2. TPP와 섬유산업

6 3. 한국 섬유산업 현황

Ⅱ. 주요국 정부 · 섬유업계 반응 및 전략

9 1. 미국

16 2. 일본

21 3. 베트남

29 4. 중국

32 5. 인도네시아

Ⅲ. 시사점

35 1. 우리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요 약

□ TPP, ‘15년 상반기 중 타결 전망

ㅇ 협상 최대 쟁점이던 미·일 협상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TPP가 ‘15년 상반기 중 타결될 것으로 전망

- 협상 최대 쟁점이던 **미·일 협상 마무리** 단계
- 섬유 분야는 원산지 기준 확정 못했으나, 미국의 **원사기준 관철 예상**
- 미국, TPP 타결에 중요한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 2월 발의될** 전망

□ TPP 참여국/비참여국별 TPP 대비 움직임 활발

ㅇ TPP 협상 타결, 산업경쟁력/입지에 따른 희비 교차

1) **미국 (TPP 참여)**

- **섬유 업계,** 중국산 섬유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미국 섬유시장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 우려하며 **원사기준 지지**
- **의류 업계,** 원사기준은 글로벌 유통 체인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섬유/의류 산업에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없다며 **원사기준을 반대**
- 최근 미국이 겪고 있는 서부 항만 물류 적체 심화와 물류 운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섬유산업에 있어 **멕시코가 최적 투자지로 부상**
- (Love Culture, Inc.) 원사 및 원단 생산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원사기준보다는 **봉제기준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봉제기준이 채택될 경우 베트남이나 인근의 멕시코가 가장 좋은 소싱국으로 전망됨.

2) **일본 (TPP 참여)**

- 원산지 규정으로 **‘봉제기준’ 및 ‘누적기준’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시에 원사기준 적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남아시아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음.
- **(이토츄 상사)**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를 위해 원단 수입 관세가 ‘0’인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도 봉제 공장을 신설할 계획

3) **베트남 (TPP 참여)**

- ‘14년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은 89억달러로 전체 의류 수출의 47%를 차지. TPP 타결로 베트남산 섬유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이 2020년까지 200억 달러로 도달할 것으로 **베트남 섬유산업은 TPP 최대의 수혜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음.

  * 현재 미국 수출시 베트남산 섬유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는 평균 17~18%

- 베트남 정부는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적·방직·염색 공정에 특화된 공업단지 및 클러스터를 2020년까지 조성하는 마스터플랜 발표
- 베트남 진출 섬유기업들은 TPP 타결을 앞두고 생산시설 확장을 통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홍콩, 대만,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4) 중국 (TPP 비참여)
- TPP 타결 시 중국 진출 외국계 방직업체들이 베트남 등 TPP 참여국으로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중국 섬유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이에 일부 중국기업들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있음.

5) 인도네시아 (TPP 비참여)
- 인니 섬유업계는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섬유 수출국인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인니의 TPP 참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인니 산업부는 TPP는 섬유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참여 계획이 없다고 밝힘.
- 또한,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는 저가 제품 시장이 아닌 정장, 팬츠 등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

□ 한국기업에의 영향과 진출 전략

ㅇ 한국의 TPP 가입 시
- 한국 소재 방적업체의 TPP 원사기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내 전체를 서플라이 체인 및 시장으로 활용하여 최적 생산배치 전략 구축이 필요
- 베트남산 원단의 대부분은 품질이 낮아 TPP 원사기준이 채택되더라도 원단 소싱을 타국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큰 바, 고품질의 원단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 정비 필요
- 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ㅇ 한국의 TPP 미가입 시
- TPP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는 베트남,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말레이시아 등지로 원사 생산 공장 이전 등 역내 공급망의 효율적 배치 필요
- 베트남보다는 다소 인건비가 높으나 지리적으로 북미, 남미와 가까운 멕시코 투자도 장기적인 TPP 활용에 유리할 것
- TPP 미가입 시 섬유 수출이 감소할 것이며, 역내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증가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됨.

Ⅰ TPP 최근 동향과 섬유산업

1. TPP 개요 및 최근 동향

□ 개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참여 중
- TPP 체결 시 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됨.

〈협상 목표 및 원칙〉

협상 목표	-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FTA 체결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달성 - 역내 supply chain 강화를 위한 통일 원산지 규정 등 도입 - IT, 녹색성장, 신기술 등 새로운 통상이슈 대응
협상 원칙	- (일괄타결원칙) 29개 챕터*에 대한 동시 협상 진행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환경, 중소기업, 국영기업 이슈 등** - (상품 분야) 예외 없는 관세화, 국별 단일상품양허안,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 추진 - (서비스·투자 분야) negative list 방식으로 국별 단일유보안 작성

〈참여국의 협상 참여 시기〉

년도	국가	국가수
2008년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협정 발효	4
2008년	미국, TPP 협상 참가의사 표명	5
2008년	P4 +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8개국 참여	8
2010년	말레이시아 참여	9
2012년	캐나다, 멕시코	11
2013년	일본의 TPP 참여 공식 선언	12
2013년	한국 참여 관심 표명	

□ 최근 동향

○ 미·일 TPP 실무자 협의 주요내용 (워싱턴, 1.28-2.3)

- 양국 대표는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설정,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
- (육류) 관세율 대폭 인하, 수입량 일정수준 넘어설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에 초점
- (쌀) TPP 국가용 특별 무관세 범위 최대 5만톤까지 설정
- (자동차) 완성차 관세율(2.5%) 10년 후 철폐, 자동차 부품 관세(2.5%) 철폐 시기가 주요 초점

○ 미국, TPP 타결에 중요한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 2월에 발의 유력

- 지난 1.27일 상원 금융위원회의 통상정책 공청회 직후 오린 헤치(Orrin Hatch) 상원 금융위원장은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발의시기에 대한 질문에 “2월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답변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의 수정 금지

- 3월로 예정된 TPP 장관급 회의 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TPA를 부여받는다면 미국 의회의 합의사항 수정에 대한 우려가 잠식되어 최종 타결에 힘을 실어줄 전망

○ 타결시점 전망

- 미국 무역대표부(USTR), 2개월 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의회에 전달
- 일본, 4월 아베신조 총리의 방미 전 TPP 협상타결 할 방침
- 미일 간의 최대 쟁점이던 쌀 시장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문제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음.
- TPP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합의안을 만들어 타결 선언을 하면 나머지 국가가 추인하는 방식으로 종합 타결 될 예정
- 위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상반기 중 TPP가 사실상 타결될 것으로 전망

ㅇ 한국 정부, TPP 협상동향과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TPP 참여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

- 한국 정부는 ① TPP 협상 동향, ② TPP 참여국들과 예비양자협의 경과, ③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④ TPP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국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
- 멕시코는 자동차, 섬유 등 한국 제품의 대멕시코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외 일부 국가들의 반대 가능성은 TPP 합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쟁점

〈주요 분야별 협상 진전 상황〉

분 야	협상 진전 상황
상 품	- 일본은 5개 민감 품목(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설탕 등)보호를 원하고,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 - 미국은 일본 자동차 시장 비관세장벽 철폐 및 세이프가드 권한을, 일본은 미국 자동차시장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 - (쇠고기, 돼지고기) 관세율 대폭 인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에 대해 중점 협상 중 - (쌀) TPP 국가용 특별 무관세 범위에 대해 중점 협상 중 - (자동차) 완성차 관세율 철폐,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시기에 대해 중점 협상 중 - (섬유) 원산지 규정에 대해 중점 협상 중 (미국은 원사기준을 고수하고 있음.)
지적 재산권	- 미국 등이 의약품 지적재산권, 특허권 강화를 요구 -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복제약 생산에의 영향, 의약품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반대
국영기업	- 미국은 민간·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국영기업 지원 철폐 주장 -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신흥국은 국영기업(SOE) 보호를 위해 우대 철폐를 대신하여 국영기업의 내부 감사 강화, 예외분야 설정 등을 제시
환 경	- 기존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에 대해 논의
투 자	- 기업이 배상을 요구하여 외국정보를 고소할 수 있는『투자가와 국가의 분쟁 해결 조항(ISDS)이 쟁점』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2. TPP와 섬유산업

□ TPP 협상 중 섬유산업 관련 논의 동향

○ 섬유 분야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원사기준(Yarn Forward)을, 베트남은 봉제기준(Cut and Sew)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까지 맺은 대부분의 FTA에서 원사기준을 양보하지 않고 고수하였음.

○ 베트남, TPP 최대 수혜국으로 지목

- TPP 참가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이나 베트남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의류 및 잡화(신발) 분야가 수혜품목으로 예측
- '14년 기준, 베트남의 섬유분야 수출은 23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중 의류가 전체 섬유 수출의 90%를 차지
-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유럽·일본·한국·캐나다가 '14년 베트남 전체 섬유 수출의 87.5%의 비중을 차지
- 특히 TPP 회원국이자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는 베트남 전체 의류 수출에 46.7%에 해당하는 89억 달러를 수출
- 최근 1년간 한국, 홍콩, 일본 기업의 베트남 섬유산업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TPP의 파급효과를 예견한 해외 투자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TPP 관련 주요 원산지 규정 정리〉

〈생산공정기준 : Specific Manufacturing process criterion〉

생산공정기준이란 각 품목별로 특정한 생산 공정을 지정하고, 그러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동 품목의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특히 섬유제품에 생산공정기준이 널리 사용되며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대표적

-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 섬유원료부터 역내 국가에서 생산하여 그 이후 모든 생산과정(4단계 변형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여야 섬유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
- **원사기준(Yarn Forward) :** 역내 국가에서 방적공정을 통해 생산된 원사를 재료로 하여 제직·편직 공정을 통해 직물을 만들고, 직물을 재단·봉제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등 역내 국가에서 3단계 이상의 변형공정을 거쳐야만 섬유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기준
- **제직기준(Fabric forward) :** 역내 국가에서 제직·편직 공정을 통해 직물을 만들고, 직물을 재단·봉제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등 2단계 이상의 변형공정을 거쳐야만 섬유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기준
- **봉제기준(Cut and Sew) :** 재단, 봉제 또는 결합공정만 역내 국가에서 수행하는 등 1단계 이상의 변형공정을 거쳐야만 섬유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기준

〈누적규정 : Cumulation/Accumulation〉

생산업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한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내산 재료 즉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규정. 일반적으로 생산품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가공(substantial transformation)"하여야 한다는 역내가공원칙이 있는데, 누적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 내에서 생산되기만 하면 모두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역내가공원칙의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간에 적용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재료를 국내산 원재료로 간주
-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 이외 자유무역협정으로 서로 연결된 제3의 국가에도 적용하여 제3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원재료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국내산 원재료로 간주
- **완전누적(Full cumulation) :** 자유무역협정의 전체 지역을 단 하나의 단일 영토로 간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 동 지역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 및 부가가치를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 또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 및 부가가치로 간주

자료원 : 조만희,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삼일인포마인, 2014

3. 한국 섬유산업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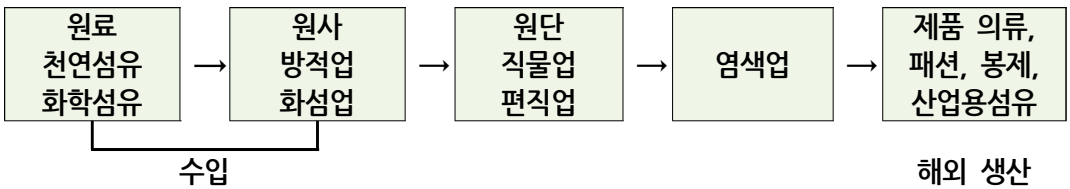
□ 한국 섬유산업 일반현황

○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은 원사, 직물, 염색가공, 패션의류 등 균형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달

○ 의류용의 경우 중·저가 범용품보다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 친환경섬유에 치중하는 한편 산업용섬유 등 신섬유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력과 제품화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음.

- (산업구조)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그 완제품의 2/3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의존형,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 (생산구조) 원료·사·직물·염색·제조·유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로 형성되어 있고 고용 창출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공산업

〈생산 구조〉



□ 한국 섬유산업 교역현황

○ 세계 8위의 섬유 수출국, 기술력 세계 4위

- 섬유류 수출 세계 8위 : 섬유소재 수출 세계 5위, 의류수출 세계 20위
  * 섬유류 수출 : 1)중국, 2)EU, 3)인도, 4)터키, 5)방글라데시, 6)베트남, 7)미국, 8)한국, 9)파키스탄, 10)인니 순 ('13년 기준)
- '14년 섬유 수출은 159억불, 수입 146억불로 무역수지 13억불 흑자 기록, 전체 무역수지 흑자(474억불)의 2.7% 차지

○ 섬유산업은 '87년부터 '02년까지 매년 100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의류 수출감소에 반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점차 감소

1) 『2014 섬유산업통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4

〈한국 섬유산업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90년	'95년	'00년	'05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잠정)
수출	14,766	15,656	18,783	13,946	11,634	13,899	15,943	15,595	15,955	15,934
수입	2,316	5,214	4,788	6,765	7,407	9,924	12,524	11,987	13,520	14,635
수지	12,450	13,442	13,995	7,181	4,227	3,975	3,419	3,608	2,434	1,299

자료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14년 섬유류 주요 10대 교역국 중 TPP참여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 인도네시아는 TPP참여국이 아니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TPP협상 타결에 따른 현지 진출 우리 섬유기업의 동향 변화가 예상됨.

〈'14년 국가별 섬유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	증감율	국가명	금액	증감율
1	베트남	2,734	9.2	중국	6,592	4.3
2	중국	2,515	-7.9	베트남	2,757	20.1
3	미국	1,433	1.4	인도네시아	755	2.1
4	인도네시아	1,340	1.1	이탈리아	626	12.6
5	일본	866	5.2	미얀마	466	18.7
6	홍콩	613	-8.5	일본	425	9.6
7	UAE	460	7.5	미국	366	3.1
8	필리핀	337	8.8	인도	363	5.5
9	터키	304	10.3	프랑스	256	-1.5
10	캄보디아	264	3.4	태국	241	16.0

자료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 섬유산업 투자현황

○ 섬유산업의 해외투자는 '80년대 중반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80년 후반 인력난, 높은 임금 상승률 등으로 생산여건이 악화되면서 크게 증가

○ 업종별로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봉제산업 진출이 활발

〈한국 섬유산업 해외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불, %)

'95년		'00년		'05년		'10년		'13년		전체(누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220	266	240	161	440	393	125	348	129	386	5,383	6,872

자료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통계

Ⅱ 주요국 정부·섬유업계 반응 및 전략

1 미국

□ TPP 추진 관련 섬유업계 반응

ㅇ (Textile and Apparel Alliance for TPP[2])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지지

- 섬유 및 의류관련 원산지 결정기준이 원사기준인 경우에만 TPP에 찬성하는 입장임.
- “봉제기준” 혹은 “누적 원산지 규정” 도입 시 베트남 등 TPP 국가에서 중국산 섬유를 사용해 생산된 의류가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중국 섬유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미국 섬유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미 섬유업계는 지속된 산업기반의 약화에도 불구, 지난 2000년도부터 꾸준히 미국 내 생산기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자동화 및 생산성을 높여왔으며 TPP에서도 원사기준이 채택되어야 미 섬유산업의 피해가 줄어들 것임.
- 2013년 7월 165명 이상의 미국 국회의원이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을 주장하는 TAAT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명을 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지서한을 제출한 바 있음
- TPP에서 원사기준이 채택되더라도 TPP 참가국중의 하나인 일본산 고가, 고기능 원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일본산 원단은 의류 분야보다 카펫, 가구, 커튼 등의 Home Textile 분야와 자동차 시트 및 매트 등의 Automotive Textile 분야에서 수요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그동안 Home Textile과 Automotive Textile 산업 분양에서 선점해온 미국산 원단의 수요가 TPP 타결과 함께 감소하고 TPP 협정의 관세철폐로 고가의 고기능 일본산 원단 수요가 증가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2) TAAT는 American Fi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National Cotton Council, NCTO, the United States Industrial Fabrics Institute, Central American-Dominican Republic Apparel and Textile Council, the Africa Coalition for Trade 등 세계 주요 대미 섬유 수출 기업 및 협회를 회원으로 둔 조직

○ (TPP Apparel Coalition[3]) 원사기준에 대한 반대 입장 견지

-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을 반대하고 'flexible, liberal, 21st century ROO standard'라고 지칭하는 보다 유연한 원산지 규정을 지지
- 과거 FTA 협정의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all or nothing'의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원사기준은 글로벌 유통 체인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섬유/의류 산업에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없는 방식
- TPP Apparel Coalition은 봉제가 TPP 협정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 봉제기준을 지지하며 이는 섬유/의류 기업의 패션과 비용변화에 따른 공급선 변경을 용이하게 함

○ (美 34개 의류기업[4]) 유연한 원산지 기준 협상 촉구

- Wal-mart, Target, Sears, Gap, Nike, American Eagle Outfitters 등을 포함한 34개의 미국 의류업체는 미 무역대표부에 유연한 원산지 규정 협상을 요구하는 서신 송부
- 서신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류에 대한 유연한 원산지 규정과 즉각적인 상호간 무관세 혜택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원사기준은 미국 섬유/의류기업이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 유연한 원산지 규정과 즉각적인 무관세 혜택은 미국의 소매업, 의류 브랜드, 제조업체, 수입업체, 국내 섬유 및 의류 생산기업으로부터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할 것이라고 평가

3) TPP Apparel Coalition은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National Retail Federation, The United States Fashion Industry Association 등 미국 주요 의류 협회 및 기업으로 이루어진 조직

4) Adidas America, Inc., American Eagle Outfitters, Ann Inc., Ascena Retail Group Inc. Avon Products Inc., Brooks Brothers Group, Inc., Cintas Corporation, Coach Inc., ExOfficio LLC, F & T Apparel LLC, Gap Inc., J.C. Penney Corporation, Jockey International, Inc., Kohl's Department Stores, Inc., Levi Strauss & Co., LFUSA, Macy's, Inc. Marmot Mountain LLC, Michar LLC, Nike, Inc. Oxford Industries, Inc. Pacific Sunwear, Perry Ellis International, PVH Corp, Reebok International Ltd., S만 Fifth Avenue, Sears Holdings Corporation, Target Corporation, The Apparel Group, Ltd., The Apparel Group, Ltd., The Children's Place, The Gymboree Corp., The Johnes Group, TTI Global Resources, Inc., Wal-Mart Stores, Inc.

ㅇ 따라서, TPP 추진 자체에 대한 찬반 의사보다는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이 채택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아직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관세 인하 및 철폐 시기, 품목 차별화에 대한 뚜렷한 대응전략과 의견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시기, 품목 차별화에 따라 TPP 타결 영향이 확실해 질것

□ TPP 추진 관련 정부의 입장

ㅇ 주요 협상이슈인 섬유분야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원사기준 고수

- 미국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한미 FTA에서도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고수하여 TPP에서도 원사기준을 채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원사기준을 채택하더라도 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부족한 특정 섬유제품은 'Short Supply List'를 작성해 예외 적용이 필요할 것

ㅇ 섬유 및 의류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 예방을 위해 섬유제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Textile-specific Safeguard Mechanism) 허용

ㅇ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섬유 산업에 대한 영향

- 원사기준은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중국산 또는 인도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해 생산된 의류, 홈퍼니싱, 기술섬유제품 등이 미국으로 무관세 수입되는 것을 제한함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
- 반면, 원사기준은 TPP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원사와 원단으로 TPP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므로 미국의 의류 소비자, 가정용 섬유시장, 특수 섬유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전망
- 미국 내 가정용섬유와 기술섬유 제조 산업은 전 세계적인 비교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생산 자동화비율로 인해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비용의 혜택이 거의 없으므로 TPP 협정으로 인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 베트남이 산업용 원단과 고급 섬유 분야로 생산역량을 넓혀가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기업의 전략

ㅇ 한미 FTA 사례를 볼 때, 한국의 원단산업 특성상 원사기준은 까다롭고 활용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아 TPP 협정에서도 원사기준이 채택될 경우 활용도가 크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아직 중국의 원사/원단 생산 기술이 따라잡지 못한 기능성 고급원단이 아닌 경우 한국시장도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원단을 생산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사 기준의 활용도는 낮을 것으로 예측됨.

ㅇ 아직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TPP 무역협정 타결 및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미비한 상황

- 한인의류협회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에서 의류 소싱을 하던 회원사들이 철수 계획을 세우고 인건비가 다소 비싸더라도 미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활용할 수 있는 멕시코로 소싱을 계획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함.
- 베트남에서 멕시코로 소싱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패션과 시즌에 민감한 여성복 전문 업체들로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를 고려하더라도 물류 운송 비용과 45일이나 소요되는 조달 시간,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선사 및 항만노조 갈등으로 인한 서부 항만의 물류 적체 심화로 베트남으로부터의 소싱은 변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임. 이에 항만으로의 선적을 피할 수 있는 멕시코가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음.

ㅇ 한인원단협회 Eugine Kim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당연히 봉제기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원사를 비롯한 원단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TPP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봉제기준이 더 실용적이라고 함.

- 한국에서 원사에 사용되는 섬유원료가 생산되더라도 이미 원사, 원단, 봉제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대부분 중국으로 기반을 옮겼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원사에 사용되는 섬유원료도 중국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원사기준이 채택된다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TPP 협정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함.

〈 BCBG Max Azroa Grpup, LLC. 〉

▶ BCBG Max Azria Group, LLC. 사는 연 매출액 2,300만 달러 규모의 익스트림 스포츠 의류 전문 업체임.
▶ 자동차 경주용품, 스포츠 저지, 모터크로스(BMX), 마운틴 바이크 등의 익스트림 스포츠 의류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974년 설립되어 미 전역의 리테일 매장들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ㅇ TPP 발효 후 해외 아웃소싱 전략 변화

- BCBG Max Azria Group, LLC.의 Senior Vice President인 Jane Bong씨는 TPP 대응전략에 관하여 현재 기업의 소싱 전략 변경계획은 없다고 밝힘.

〈 Love Culture, Inc. 〉

▶ Love Culture, Inc. 사는 2007년 설립되어 미 전역에 76개의 매장을 운영했으나 지난 2014년 초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지난 8월 한인투자그룹인 United LC Capital, LLC. 가 인수
▶ 파산보호 신청 이후 매장수가 절반으로 줄었으나 United 캐피털 인수 이후 본격적인 매장관리와 경영진 교체, 채무관계 정리 및 개선을 통한 재정 관리로 미 패션업계에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Love Culture, Inc. 의 신임대표이사인 Bryan Kang 대표는 TPP 협정이 타결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수입을 하는 미국과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멕시코와 베트남인 것 같다고 함.
- 그러나 TPP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섬유, 의류 분야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원사기준”이 채택된다면 대부분의 원사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원단 또한 중국산이 대부분인 국제시장에서 TPP 협정 혜택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 반면, “봉제기준”이 채택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와 베트남의 봉제산업은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Love Culture 뿐 아니라 해외에서 봉제된 의류를 수입/소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류 업체들은 당연히 “봉제기준”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함.
- TPP 협상에서 봉제기준이 채택된다면 베트남이나 인근의 멕시코가 가장 좋은 소싱국으로 여겨지며 원사기준이 채택된다면 TPP 협정 타결에도 불구 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소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 American Apparel, Inc. 〉

▶ American Apparel. 사는 미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의류업체로 1998년 설립. 미 전역에 약 250개의 의류 매장과 애완동물용품 매장을 직영하고 있음.
▶ 해외 “sweat shop”이 아닌 미국내 의류 생산 “American Made 또는 Made in USA”으로 윤리적인 국내생산을 지향하며 유명세를 탔으며 보유 브랜드로는 Classic Girl, Classic Baby, Standard American, Sustainable Edition 등이 있음.

- Production Sourcing Manager인 John Chung씨는 아직 한미 FTA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TPP에 대해 최근 내부적인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함.
- 중국으로부터의 소싱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으나 한미 FTA 및 TPP 활용 가능여부를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함. 관련 정보 및 활용방안에 대한 도움 요청.

〈 신티에스 〉

▶ 2004년 설립, M/C복, outdoor복, 자전거복 등의 위탁가공무역사업을 하고 있음.
▶ 2014년 베트남 출발 수출액 8,500만불 (대미국 수출액 500만불)
▶ KLIM, ALPINESTARS SPA, TETON Oufitteres, Amazon.com, Sherpa Adventures Gear, Paragon Sports, 등에 아웃도어의류, 기능성 스포츠의류, 바이크웨어 등 OEM 수출 전문 기업

ㅇ TPP 발효 후 해외 아웃소싱 전략 변화

- 현재 중국, 대만, 일본, 유럽등지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베트남에 위치한 신티에스 소유 본 공장에서 스포츠의류를 제작하고 있음.
- TPP의 원사기준에 부합하여 혜택을 보려면 베트남 내에서 원단을 소싱하여야 하나, 현재 베트남산 원단의 대부분은 현재 신티에스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 의류 원단의 품질을 따라가지 못함. 하지만, TPP혜택을 받기위하여, 베트남 내의 원단업체와의 협력을 추진해 볼 예정임.

ㅇ 기업차원 대책

- 원사기준 준수를 위해 현지 원사, 원단제조업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기존 중국, 대만, 일본의 원단 공급업체와 연결된 베트남 현지 업체를 소싱하는 노력도 기울여 소싱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

□ 우리 섬유기업의 TPP 활용 전략 및 유의사항

ㅇ 우리 섬유기업의 TPP 활용 전략

- 중국의 대미 의류 수출 타격 및 베트남 성장 예상
-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은 2025년까지 46% 성장 할 것으로 보임.
- TPP의 원산지 규정 강행으로 베트남은 면사, 섬유 공급원이었던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등 타국으로 소싱을 바꾸거나 자체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
- 베트남의 생산 물량이 폭증하게 될 경우 추후 세이프가드조치의 우려도 있으므로 현지의 업체들은 원사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TPP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에 원사 생산공장 설립, 투자를 본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기준 채택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
- 베트남에서의 원사 생산 투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노동력 확보를 가능토록 하여 미국시장 진출뿐 아니라 본격적인 북미 및 남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할 것.
- 또한 베트남보다는 다소 인건비가 높으나 지리적으로 북미와 남미와 가까운 멕시코 투자도 장기적인 TPP 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에서는 티셔츠와 청바지 의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약 30개의 원사/원단 생산업체들이 있음.

ㅇ 유의사항

- TPP는 협상국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에게는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관세, 비관세 혜택이 폭 넓게 적용되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무차별하게 효과를 누리게 된다면 결국은 특혜의 개념은 약해질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고 물량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결국은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임.
- 섬유의 생산 단가와 가격 경쟁은 점차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섬유 기업들은 디자인과 기술력을 통한 경쟁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2 일본

□ TPP 추진 관련 섬유업계 반응

ㅇ 일본의 섬유·의류 산업계는 섬유 제품의 관세율이 대체로 높은(일본의 2~3배) 미국 시장 접근 개선이 기대되어, 일찍부터 TPP에 대해 찬성을 표명해왔음.

- TPP 타결로 인한 최대의 장점은 섬유 제품의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미국 시장 접근의 개선임.

ㅇ 섬유 제품의 관세에 대해서는 전 품목 상호 즉시 철폐를 희망

- 해외 각국의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합성 섬유 직물은 일본이 5.3~6.6%, 미국 8.5~14.9%, 중국 10~18%
- 면직물에 대한 관세는 일본이 3.7~5.6%, 미국 6.5~15.5%, 중국 10~12%
- 의류 제품은 일본이 대체로 10%인 반면 미국은 품목에 따라 30% 이상의 관세율이 되는 것도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FTA / EPA 체결은 직편물 및 의류 업계는 물론 원사제조업, 방적업부터 소매유통까지 일본의 섬유 산업 전체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

ㅇ 미국이 섬유 분야를 민감 품목으로 규정하고 원사기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은 제직기준 및 누적 규정의 적용을 희망[5)]

- 지금까지의 TPP 협상 과정에서 섬유 분야가 민감 품목으로 취급되고, 미국이 원사기준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 표명
- 원산지 규정으로 제직기준이 채택되도록 요구. 기존 ASEAN, 인도와의 EPA는 이 기준을 채택했으며, 스위스, 칠레와의 EPA에서도 유사한 규칙이 채택되어 스파게티 보울 현상 방지의 관점에서도 제직기준 채택이 바람직
- 일본과 TPP 참가국의 글로벌공급망을 활용하여 섬유 무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직기준 및 누적 규정의 채택이 필요

5) 내각관방 TPP 정부대책본부 홈페이지 'TPP에 대한 각 분야 의견 정리'

□ TPP 추진 관련 정부의 입장 (섬유 관련)

ㅇ 정부의 추진 전략 및 업계 대응 방안

- 원사기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14년 12월 미국과의 TPP 수석 협상관 회의 이후 내각관방 심의관의 기자 브리핑에 다소 언급됨.
- 원사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원사 및 직물이 TPP 역내에서 조달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short supply list'를 선정하자는 논의가 2013년 일본이 협상에 참여했던 때부터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일본은 섬유분야의 상호 관세철폐 등에 대해서 찬성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략 및 예외 등이 아니라 관세 철폐와 무역장벽 철폐라는 TPP의 기본 틀 이행을 요구하는 자세를 견지
- 다만, 원사기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음. 따라서 제직기준 채택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주요 기업의 전략

〈 이토츄 상사(주) 〉

▶ 1858년 시가현에서 개업한 섬유 도매상으로 시작했으며, 전후(戰後) 남성 의류 원단 수입과 의류 위탁 생산 하청 추진
▶ 이후, 상표권을 잇따라 인수하며 '헌팅 월드'나 '캔버스' 등 일본 국내에서의 상표권 약 150개 브랜드를 보유하며 섬유·의류 분야에서 강점 보유

ㅇ TPP 참가국내 생산 거점 확대 및 강화

- 이토추 상사는 TPP를 고려하여 베트남에 본사 통합을 추진해왔음. 협상 참가국인 베트남에서 일괄 생산한 셔츠를 미국에 수출하면 관세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임.
- 베트남에서는 100여개의 섬유 기업과 거래 직물 등 원료 조달에서 봉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장이나 셔츠 등을 일본, 미국, 유럽에 공급하고 있음.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계 섬유 기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임.

- 2014년 5월 봉제 공장이 있는 하노이 근처의 남딘성에 염색 공정을 갖춘 직물 공장을 설립, 2015년 상반기에는 연간 약 1500만 장 생산 체계를 실행, 실에서 봉제까지의 일관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됨.
- 직물의 생산은 이미 제휴하고 있는 중국 의류 기업 및 베트남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게 됨.
- 2013년 봄 가동한 방적 공장도 2015년 4월에 생산량을 약 2배로 끌어올릴 예정임.

ㅇ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 추진

- 동사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확장 중임. 봉제 공장을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서도 신설할 계획

  *동사가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셔츠는 연 6천만 장으로 일본 의류 업계로는 최대 규모이며 25%가 미국 시장으로 수출

- 이 3국은 원단의 수입 관세가 '0'으로, 베트남에서 일괄 생산한 원단을 각 거점으로 공급하게 되면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지리적인 장점을 살리면서 글로벌 의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 보유. 이토추는 14년부터 2년간 전사적으로 최대 1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3분의 2를 섬유 등 분야에 투입할 것으로 보임.

ㅇ 베트남-EU FTA 체결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전개

- 이토추는 베트남 정부가 향후 EU와의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을 유럽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

〈 도레이(주) 〉

▶ 1926년 미쓰이 그룹내 레이온 생산 기업으로 시작, 합성섬유 분야에서는 일본 최대 기업
▶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과 제휴한 '히트 텍'의 성공으로 매출액이 급증, 합성섬유 생산량으로는 세계 10위지만 매출액은 1위(2011년 기준)
▶ 원사 판매에 그치지 않고 섬유와 봉제 등 섬유 소재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강점으로 보유

ㅇ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 고려, 현지 생산 거점의 원단 조달 체계 강화

- TPP의 원산지 규정으로 원사기준이 채택될 경우 TPP를 활용한 대미 수출 전략의 열쇠가 방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레이는 이러한 동향을 민감하게 감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말레이시아에 방직 가공 거점으로 ‘펜 패브릭’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테크윈과 합작으로 ‘펜 테크 윈’도 설립, 라미네이팅 직물의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음.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원단을 베트남에서 봉제하여 수출하는 TPP를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 수립

ㅇ 해외 거점 생산 품종의 고부가가치화 가속

- 요시나카 유지 도레이 말레이시아 사장은 “말레이시아는 이미 범용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향후 생산 품종의 고부가 가치화를 가속시켜 나갈 것”이라며, 부가가치 제품 생산 판매로의 전환을 가속할 것임을 밝힘.
- 이 때문에 섬유 사업에서도 생산 품종 용도의 전환을 추진중임. 펜 페브릭의 폴리에스테르 단 섬유는 재봉실 용도가 주력이지만 "재봉실은 수급 균형이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큰 폭의 마진 회복은 어렵다"(펜 패브릭 관계자)고 함.
- 따라서, 부직포용 원사와 방직 의류용 극세 섬유 원사로의 전환을 추진, 도레이 그룹과 태국 등 현지 기업에 대한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

〈 패스트 리테일링(주) 〉

▶ 1949년 야마구치 현에서 창업
▶ 세계적인 SPA 브랜드 유니클로 전개로 일본 국내 SPA 업계를 선도
▶ 대표적인 히트 상품인 '히트 텍'은 2003년 출시 이후 10년 만에 누적 판매량 3억 매를 돌파.

ㅇ 중국내 생산 비중 축소, 동남아시아 지역 생산 확대로 비용 절감

- 패스트 리테일링은 현재의 해외 생산 위탁 공장 소재 지역을 넓혀 나가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 추진 중

-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늘려 현재 약 75%인 중국내 생산 비중을 60%까지 낮출 계획

ㅇ 일본계 기업과 협력, 신흥국내 '유니클로' 브랜드 매장 확대

- 미쓰비시 상사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유니클로' 브랜드 매장을 확대하는 등 현지 중산층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음.

*미쓰비시 상사는 인도네시아 업체와 협력, '16년까지 7개 의류 관련 공장을 만들 계획임.

□ 우리 섬유기업의 TPP 활용 전략

ㅇ 일본계 기업들의 진출 전략이 주는 시사점

- 원사기준이 채택되었을 경우를 감안해 방직 업체들이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의 협상 참가국에 생산 거점을 직접 구축하는 방안
- 중장기적으로는 TPP나 개별 FTA 등에 추가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진출·투자 필요성

ㅇ TPP 참가국으로의 생산 거점 이동

- 원사기준이 채택될 경우 TPP를 활용한 대미 수출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방적 공장의 현지 보유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방직 및 염색 등 관련 기업들의 TPP 참가국에 생산 거점을 신설하는 것이 한 가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의 해외 거점 활용

- 일본계 기업의 경우, TPP 관련 국가가 아닌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으로 생산 기지 이전·진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음.
- 이것은 인건비 등의 비용 관련 이유뿐만 아니라 상기 신흥 국가들을 새로운 소비지로서, 이른바 '지산지소'의 관점에서 생산 거점인 동시에 소비 지역으로서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임.
- 신흥국의 중산층 구매력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임.

3 베트남

□ TPP 추진 관련 섬유업계 반응

○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협상 참여가 결정적이었으며, 베트남의 핵심 수출산업인 의류·섬유 제품의 미국시장 공략을 겨냥한 것임.

- 2014년 한해 미국은 베트남 전체 의류 수출의 46.7%(89억달러)에 해당하는 섬유·의류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했으며, 2008년 이후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대미 2위 의류 수출국에 해당

* 베트남 섬유산업은 2014년 233억 달러를 수출해 베트남 총수출의 15.5%를 차지했으며, 16%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 베트남 경제 침체에도 불구, 2010~2014년 베트남 섬유 수출은 연평균 18.7% 증가. 의류가 전체의 90%를 차지해 실질적인 수출을 주도
*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46.7%)·유럽(15.6%)·일본(12.6%)·한국(10.4%)이 베트남 전체 섬유 수출의 85%의 비중을, TPP회원국인 미국·일본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

○ 베트남 정부는 TPP 발효로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이 2020년까지 2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미국 수출시 베트남산 섬유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는 평균 17~18%

○ 미국이 주장하는 원산지 인정 조건으로 원사를 기준으로 섬유원산지를 판단하는 '얀포워드(yarn-forward)' 규정은 협상의 최대 쟁점사항임.

- 베트남 섬유산업에서 원부자재 부문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해 베트남 국내 의류생산의 절반 수준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그치고 있음.
- 원부자재 수급의 높은 비중을 중국·한국·대만·홍콩과 같은 주요 공급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이 같은 상황에서 얀포워드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베트남이 기대하는 베트남산 의류의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음.

ㅇ 현재, 베트남 정부는 미국 농산품에 대한 자국 시장 개방 및 지재권 규정에 대한 양보 등을 조건으로 원산지 규정의 완화를 미국측에 요구중인 것으로 확인됨.

- 자국 내 원사 생산량 부족으로 중국 등 역외에서 조달해야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short supply list”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

ㅇ 또한 협상에서는 모든 의류와 섬유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감도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품목을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감도 중간 정도의 품목은 매년 20%, 5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TPP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
- 니트 제품의 경우 10년간, 우븐 제품의 경우 15년간 관세율을 유지. 동 기간이 경과하면 관세를 철폐

ㅇ 상기 이슈들이 베트남 섬유제품의 미국 시장 침투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TPP 발효로 베트남 섬유산업에 돌아오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입장 (섬유부문 최대 국영기업 ‘VINATEX’社 Vu Duc Giang 회장)

□ TPP 추진 관련 정부의 대책

ㅇ 2014년 4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TPP에 대비한 섬유산업 발전을 골자로 방적·방직·염색 공정에 특화된 공업단지 및 클러스터를 2020년까지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

-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수출방식에서도 하청 형태의 저부가가치 제품이 아닌 디자인·생산·판매단계에 베트남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또는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 방식으로의 발전을 모색
- 또한 베트남 국내에서의 원부자재 수급율을 2015년까지 55%, 2020년까지 6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ㅇ 마스터플랜에서는 베트남 섬유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염색 공정에 대한 투자가 관건이라고 지적

- 오염처리시스템이 겸비된 공단을 조성하고, 염색 품질 향상과 환경오염에 영향이 적은 기술에 투자하는 투자기업 유치가 관건
- 하지만 원단 품질과 직결되는 염색 공정의 경우 환경 오염을 이유로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 베트남 지역 각 성별로 염색 공정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투자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베트남의 섬유산업 발전 목표〉

목표	단위	2015	2020	2030
수출액	10억$	23~24	36~38	64~67
고용규모	1,000명	2,500	3,300	4,400
주력 생산품목				
- 면사	1,000톤	8	15	30
- 합성·인조 실	1,000톤	400	700	1,500
- 방적실	1,000톤	900	1,300	2,200
- 직물	백만sqm	1,500	2,000	4,500
- 의류	백만장	4,000	6,000	9,000
국산 자재 비중	%	55	65	70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Decision 3218/QD-BCT(2014.4.11)

ㅇ 향후 베트남 정부는 면화농장, 직물 제조, 염색,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

- 천연·합성·인조 원사, 직물, 화학물질, 염료, 의류 악세사리 부문 투자에 초점을 맞춰 수입관세 감면 및 저리융자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ㅇ 한편, 베트남 섬유산업에서도 외투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자국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존

- 베트남 현지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나 범위에서 외투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섬유 원자재와 의류 악세사리에 대한 투자에 주력.
- 원사와 직물 생산의 경우 의류 생산에 비해 높은 투자자본이 요구되는 특성상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 베트남 전체 섬유수출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국영기업 'VINATEX'는 2014년에만 51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현지진출 우리기업 동향 및 반응

〈 한세 베트남(의류 생산) 〉

▶ 1982년 창립이래 의류수출사업을 특화하였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키과라, 과테말라에 각각 해외현지법인을 운영
▶ 2008년에는 뉴욕 맨하튼 브로드웨이에 사무소 신설하였으며, 주요바이어는 나이키, 갭, 아베크롬비 &비치 등이며 월마트, 타깃 등 세계적 대형 유통 매장의 자체 상표도 납품
▶ 주요 품목은 캐주얼 의류, 숙녀복, 정장

- 상승하는 인건비로 인한 납품원가 부담, 생산성 향상 한계 등 베트남 섬유산업 투자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 수출이 많은 베트남 현지 생산업체에게 TPP는 희소식임.
- TPP 발효에 따른 역내 국가 내 관세 철폐는 베트남 현지 생산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다줄 것으로 예상
- 동사는 2013년 염색공장을 인수하는 등 원사기준에 대비한 일관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 중
-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에 있는 방적회사 등은 원사기준에 따라 혜택을 보겠지만,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내 폴리에스테르 공급 한계로 차질 예상
- 베트남 국내에서 니트 소재는 조달이 가능하나, 폴리에스테르는 수급이 어려움.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

〈 FTN (의류 생산) 〉

▶ LG상사의 의류 부문으로 197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효율성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2002년 새롭게 출범하여 의류수출전문기업으로 성장
▶ 필리핀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다국적 생산 공장들을 설립하여 다양한 종류의 옷을 생산
▶ 주요바이어는 버버리, 캘빈클라인, 토리버치 등 총 18개의 브랜드가 있음.

- 한국의 TPP 참여는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단보다 한국 원단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베트남 현지 업체는 한국 원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됨. 베트남에서 니트는 수급이 가능

하나 우븐은 약 50% 정도만 수급이 가능한데,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한국산 우븐 수급이 가능해지게 됨.

-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원단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없어 중국산 원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한국산 원단은 중국산 원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어 베트남 현지 진출 섬유 업체들은 주로 중국산을 사용함.

〈 남양 인터내셔널 (의류 생산) 〉

▶ 1985년도에 설립된 패션의류 제조업체
▶ 클럽 모나코, 타겟 등 6개의 미국 브랜드에 납품중이며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공장이 있음.
▶ 베트남에 11개 공장 및 120개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음.

- TPP가 발효되면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 혜택, 주문물량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산 원단 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력 있는 중국산 원단 혹은 TPP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단을 사용하게 될 것임.
- 베트남 내 수급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베트남산 원단은 품질 문제로 인해 전량 수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염색 기술 및 수질이 좋지 못해(석회성분이 많음) 아직까지 베트남 원단 사용은 시기상조임. 또한 최근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어 오염 물질 등 총량 제한 문제로 현지 진출 염색 업체들의 애로가 있음.
- 최근 대만의 'Union Textile and Garment Company'는 베트남 남부 'Xuan To' 산업공단에 1억달러 규모의 섬유·의류 공단 건설을 개시하였고, 섬유부문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Vinatex'는 최근 약 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 이 같은 국내외 기업의 대형투자는 TPP 효과를 누리기 위한 투자로서 파급효과가 크며, 투자 증가로 원사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공정의 수직통합화가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TPP 참여국이 아닌 중국, 대만 기업들은 TPP, RCEP 협정이 모두 적용되는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효성 (스판덱스 생산) 〉

▶ 1992년 효성이 안양공장에서 스판덱스 생산을 시작한 이후 2000년도 중국 진출, 이후로 터키, 베트남, 브라질에 공장 설립 및 확장
▶ 주요 품목은 의류 및 기저귀 스펜덱스이며 해외 14개국에 사무소가 있음.

- 동사가 자체기술 개발해 생산하는 스판덱스 제품은 세계시장 점유율 30%를 보유하는 품목으로 중국, 베트남, 터키, 브라질에서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음.
- TPP 체결로 인한 관세 혜택과 더불어 스판덱스 원사를 베트남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동사 입장에서는 원사기준에 따라 베트남 국내에서의 원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생산량 증가가 기대됨. 한국의 TPP 참여 여부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음.
- 단, 베트남내 아직까지 부족한 염색가공 인프라는 향후 자사제품의 궁극적인 수요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현지진출 경쟁국 기업 동향

ㅇ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섬유산업에 대한 신규·증액 투자 증가 추세

ㅇ 2014년 한해 한국의 일신방직(1억7,700만달러)을 비롯해 Texhong(홍콩, 3억달러), Worldon(버진아일랜드령, 1억4천만달러), Jiangsu Yulun(중국, 6,800만달러)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유입됨.

〈주요 투자 사례〉

① Texhong Textile Group (홍콩)

- 원사·직물 생산 기업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동사(본사 상하이 소재)는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4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2006년 베트남 동나이 연짝공단에 스판덱스 원사 제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최근 들어 TPP에 대비해 3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

- 2012년 3억달러를 투자해 2014년부터 베트남 북부 꽝닌성에 면사 공장 생산 개시. 2014년 꽝닌성에 3억 달러 규모의 직물·의류 생산 투자허가 취득. 또한 2억1,500만 달러를 꽝닌성에 투자해 660헥타르 규모의 자체공단인 'Texhong Hai Ha Vietnam Industrial Park'를 건설 중

② Shenzhou Int'l Group Holdings (중국)

- 니트 의류를 생산하는 중국기업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생산공장을 가동중이며, 최근 'Worldon Vietnam'으로 나이키·아디다스·푸마·유니클로 등 패션디자인·스포츠웨어 공장에 총 3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
- 2013년 가동을 개시한 베트남 남부 타이닝성 공장에 이어 이번 투자는 TPP 발효 이후를 겨냥한 투자 확대임. 생산된 제품은 미국, 유럽, 일본으로 전량 수출될 예정

③ Yulon Group / Tai Yuen Textile (대만)

- 2014년 대만 Yulong그룹의 자회사인 Tai Yuen Textile은 베트남 북부 Ha Nam성에 1억5천만달러의 직물공장에 투자
- TPP 수혜효과를 겨냥한 동 투자는 직물과 방직·염색, 니트 의류생산에 이르기까지 수직통합 생산체계로 가동될 예정이며, 이번 투자가 베트남으로의 첫 투자에 해당

④ Jiangsu Yulun Textile (중국)

- 중국의 대형 직물제조회사로 2014년 하노이 인근 Nam Dinh성에 6천8백만 달러 규모의 원사, 편직물, 염색방적·방직 제조시설에 투자
- TPP와 얀포워드 규정을 겨냥한 첫 번째 프로젝트에 해당

⑤ Itochu (일본)

- 일본의 종합상사로 섬유부문에 강점을 가지는 동사는 이제까지 100여개의 베트남 섬유기업과 업무 제휴관계를 구축해 옴.(이중 30개는 VINATEX의 자회사)
- 2014년 동사는 9백만달러에 해당하는 VINATEX 지분의 5%를 매입하였으며,

2015년초 VINATEX와의 섬유 원자재 부문에서의 전략적 제휴 협정을 체결함. 일본기업으로서는 TPP 효과를 겨냥한 성과 공유가 가능하며, VINATEX는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베트남 국내에서의 각 생산단계별 포괄적인 공급망 구축을 기대

□ 우리 섬유기업의 TPP 활용 전략

ㅇ TPP 회원국 및 베트남 역내에서의 원부자재 공급 증가 대응을 위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 베트남 내 의류생산기업은 한국·대만·홍콩·일본에서도 원부자재를 수입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원부자재를 선호
- 미국이 주장하는 얀포워드 조건과 베트남내 낮은 원부자재 수급율은 향후 원부자재 부문 외투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전망
- 한국의 TPP 불참시 베트남산 섬유제품의 TPP회원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한국산 원부자재의 대베트남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

ㅇ 중장기적 TPP 효과 겨냥한 섬유 원부자재 생산기업의 베트남 진출 타진 필요

-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기업들은 TPP 타결을 앞두고 생산시설 확장을 통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추세임.
- 베트남의 10대 의류 수출기업 가운데 4개가 우리 투자진출기업으로 수출 네트워크가 탄탄한 만큼, 품질이 높은 우리나라의 원부자재 기업 진출 시 의류수출기업과의 win-win 가능

4 중국

□ TPP 추진 관련 섬유업계 반응

○ TPP 발효 시 미국에서 제의하는 원사기준은 중국 방직산업에 영향을 끼침.[6]

- 미국이 방직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순이며 베트남의 대부분 방직산업에서 사용하는 면화는 중국에서 수입함. TPP 규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은 TPP 참가국가에서 면실을 수입해야 원산지 규정에 부합함.
-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을 통해 15~30%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의 제조비용이 중국보다 낮아 TPP 발효로 인해 중국 섬유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TPP 발효시 참여 국가는 수입관세 면제, 비관세장벽과 시장진출장벽 완화 등 혜택이 있으나, 중국은 TPP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TPP 관세 우대 정책의 영향을 받음[7]

- 현재 중국 방직제품 수출에서 대부분은 중간제품무역으로 TPP의 원산지 규정과 세수우대 정책이 통과되면 이러한 수직적 국제분업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미국이 아세안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TPP 추진 관련 정부의 대책

○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책 발표하지 않음

- **(중국화학공업협회 푸(付)주임)** TPP 추진 관련 중국 상무부의 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중이나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 협회 역시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받지 않은 상황으로, 섬유 관련 업계에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6) 신화망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11/24/c_127245687.htm
7) 중국 브랜드 패션 사이트 中国品牌服装网 http://news.china-ef.com/20111207/285834.html

□ 현지진출 우리 기업 동향 및 반응

○ 현지 생산체계 전략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투자유치 기조가 고부가가치 및 기술 보유 산업 중심이 되면서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제조업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었으며, 인건비 지속 상승
- 섬유 제조는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으로, 많은 한국 섬유업체들이 한-아세안 FTA 발효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함

〈 BYC 〉

▶ 1955년 한흥산업주식회사로 설립
▶ 1995.4월 상해 BYC 방직품유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세계 70여국에 수출 중
▶ 주요품목은 내의 및 잠옷

- 35년 전 상하이에 투자 진출하여 현지 생산하고 있으나, 작년부터 생산법인 청산 절차 진행 중
- 인건비 상승, 노동집약 산업 투자진출 혜택 축소 등으로 중국 생산이 어려운 상황
-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이미 개성공단,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상황으로, 현재 BYC도 중국 내수용만 현지 공장에 OEM 생산하고, 이외의 생산은 인도네시아로 이전함.
- 중국은 타국 대비 청산 절차가 까다로워 투자 자본 회수가 어려움.
- 여러가지 여건으로 중국은 섬유제조업체에게 매력적인 진출 국가가 아니며, 현지 생산하는 한국기업도 많지 않아 TPP 원사기준 채택 후 중국 생산으로 관세 타격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지진출 경쟁국 기업 동향

○ TPP가 타결될 경우 세수우대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외자 방직업체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으로 전망함

○ 2012년부터 중국에서 인건비, 임대비용 인상 등 제조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일본, 대만 등 패션기업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공장 이전을 시도하고 있음

- 미쓰비시 상사는 주요 패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위해 중국에 합자공장DFM(Design for Manufacturing)을 설립하였으며,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70% 차지함.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정책적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계획

□ 우리 섬유기업의 TPP 활용 전략 및 유의사항

ㅇ 우리 섬유기업의 TPP 활용 전략

- 중국은 단기 내 TPP 추진 가능성이 적으며 만약 TPP 원산지 규정이 발효될 경우 중국에서 내수시장 이외 수출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야 함.
- 한편 중국에 대한 진출을 제조보다 현지 소비시장을 목표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

ㅇ 유의사항

- TPP 참여 국가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무역·투자 협의가 있어 정책간 충돌 가능성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5 인도네시아

□ TPP 추진 관련 섬유업계 반응

ㅇ 인니 섬유업계, TPP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섬유 최대 수출국인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

- 인도네시아섬유협회, 베트남의 미국 수출시 5~12% 관세 인하 혜택, 인도네시아는 12~31% 고율 관세 유지하게 되어 경쟁력을 잃을 것

ㅇ 베트남 등과 같은 섬유경쟁국이 참여하는 TPP에 인니가 제외될 경우, 섬유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섬유산업 크게 위축될 전망

- 인니 섬유업계, TPP 협상 참여를 위해 정부 관계자 로비 추진

□ TPP 추진 관련 정부의 대책

ㅇ 인니 산업부는 현재까지는 TPP 참여 계획 없다고 밝힘.

- 산업부 섬유과 관계자를 인터뷰한 결과 현지 섬유업계는 TPP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TPP는 섬유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밝힘.

ㅇ 시장개방보다는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임.

- 한국, 독일 등 선진 섬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기술이전,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고부가 상품을 생산·수출을 목표
- 인니 산업부는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는 저가 제품 시장이 아닌 정장, 팬츠 등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임.
- 인니 정부는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 집약 산업중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는 조세특별조치 기간을 2년 연장할 계획으로 알려짐. 조세특별조치는 5년간 1,000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고용한 기업에 우선순위로 제공. 현행 시행령은 노동 집약형 산업에 최대 5년간 30% 감세 조치를 인정하고 있음.

ㅇ 인니 정부, TPP 등의 시장 개방 협상에 상호주의 원칙 요구

- 지난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 인니가 TPP, FTAAP 등의 협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

□ 현지진출 우리기업 동향 및 반응

ㅇ 인니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은 최저 임금, 전력 요금을 비롯한 각종 생산 비용 상승, 경직된 노동시장,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음.

- 자카르타 최저 임금, '12년 전년대비 19%, '13년 44%, '14년 11%까지 인상
- 전기 요금, 지난 5년간 사용자별로 연평균 5%에서 18%까지 상승, '14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년대비 65%로 대폭 인상

ㅇ 60여개의 섬유기업, 지방이나 제 3국으로 이전 추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15년에도 생산비용 증가추세를 유지하면 이전 희망 기업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섬유·봉제 산업 한국기업 진출 현황

· '13년 기준 인니 진출 한국기업 약 2,000개 중 1,000개 이상이 섬유, 봉제, 신발, 가발 분야 업체임.
· '13년 기준 한국인 근로자는 약 1,800명, 현지인 고용인원은 50만 명 이상으로 총 수출액은 50억 달러로 추정
· 2000년대 초반까지는 Heavy garment로 분류되는 Jacket류와 Ladies woven 업체들이 대다수 차지, 2007년 이후부터 Knit 업체 대거 진출, 현재 전체 업체의 80%가 Knit 업체로 분류
· Jacket, Woven 및 Knit 류 의류제조 업체 이외에 가방(핸드백 포함), 장갑, 완구류 제조업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최근 중국 등지에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진출기업들은 인니 정부의 섬유산업 지원정책과 함께, 미국 및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TPP 참여 희망

- TPP에 참여할 경우, 관세인하,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미국 및 유럽 등의 시장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PT.경승 〉

▶ 2005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 설립
▶ 13개 생산라인에서 1,500명 근무, 연간 35만장의 여성의류 생산
▶ OEM으로 미국 유명 브랜드(Ann Taylor, GAP, GUESS, Limited Tpp, S.Oliver 등)에 납품

ㅇ 생산 공장 지방 이전을 통한 인건비 절감

- 자카르타 지역 최저 임금이 월 250달러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건비 상승폭이 작은 스마랑(Semarang), 반둥(Bandung), 찌르본(Cirebon)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함.

ㅇ 하이테크 제품 생산을 통해 수출고부가가치화

- 경쟁이 치열한 인니 시장에서 타사의 저가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고가제품, 하이테크 제품 생산에 집중 중

ㅇ 인니 정부의 섬유산업육성정책 및 TPP 참여 필요

- 현재 인니 최저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하여 투자여건이 유리하다고 판단
- (PT.경승 배응식 법인장) 베트남 시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기타 동남아국은 한국의 봉제 산업이 진출하기에 노동력이 풍부하지 않음. 방글라데시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장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낮음.
- TPP 발효 시, TPP 참여국인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하여 인니 섬유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할 것임.

Ⅲ 시사점

1. 우리기업에의 영향과 진출 전략

□ 우리나라의 TPP 미참여 시

○ TPP 역내에서 공급망·부가가치 사슬의 효율적 배치 필요

- 원사기준이 채택될 경우 TPP를 활용한 대미 수출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방적 공장의 현지 보유임. 따라서, TPP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는 베트남,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말레이시아 등지로의 원사 생산 공장 이전 등 역내 공급망의 효율적 배치 필요
- 베트남보다는 다소 인건비가 높으나 지리적으로 북미, 남미와 가까운 멕시코 투자도 장기적인 TPP 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인건비 등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흥국 중산층의 구매력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 TPP 미참여 시 섬유 수출 감소, 산업공동화 우려

- 17~28%에 이르는 대미 수입관세 면제혜택에서 제외
- '원사기준(Yarn forward)' 및 '누적원산지' 기준 적용으로 역내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증가 예상(TPP 역내로 집중) → 국내 생산능력이 떨어져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공동화 우려
- 역내국 베트남은 섬유생산의 수직일관체계를 위한 적극적 정책 도입 중

  * 베트남 정부는 TPP를 베트남 섬유산업의 질적 성장(봉제·가공 중심 → 수직일관체재)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 섬유업체 투자유치에 적극적

  * 염색 분야 기업 유치 위해 환경규제 완화 등 적극 검토 예정

- 원부자재 수출 감소 우려 : 베트남의 원사 및 원단 소싱처 전환
  (중국·한국 → 일본 등 TPP 역내국)

  * 베트남 섬유산업의 해외 원재료 의존도 : 87%(중국 39%, 한국 17%, 대만 15%, 기타 16%)

ㅇ 디자인, 기술력 확보 등 또다른 경쟁력 확보 필요

- TPP는 다자간 무역협정임에 따라 모든 참여국에 동일하게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 따라서, 우리 섬유 기업들은 디자인,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향후 TPP참여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함.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ㅇ GVC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내 전체를 서플라이 체인 및 시장으로 활용하여 최적 생산배치 전략 구축 필요
- 한국 소재 방적업체, TPP 원사기준에 따른 수혜 예상

  * 한국을 포함한 **역내국 원부자재 → 베트남 가공 → 역내시장** 판매
- 베트남산 원단의 대부분은 품질이 낮아 TPP 원사기준이 채택되더라도 원단 소싱을 타국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큰 바, 고품질의 원단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 정비 필요
- 역내 단일 통상질서를 통해 비용, 시간 단축 가능

  * 통일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시간 단축 등

ㅇ 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전략적 투자유치, M&A 등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미국, 일본, 이태리 등 선진국 섬유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전파 및 고품질 섬유제품 생산
- TPP 역내국에 진출해 있는 방적·제직·염색 등 섬유기업 M&A를 통해 통합된 생산체계 구축

□ KOTRA 및 정부의 지원 방향

ㅇ 국내 섬유업계의 효율적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 (해외) 공정별/타겟 시장별 투자 최적지 전략 추진 지원

  * 베트남 內 '한국섬유전용공단' 조성

  ** 멕시코를 제2 대미수출기지로 활용 ← 한·멕 FTA 추진 필요

- (국내) 디자인·소재 개발 등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지원

  * 첨단 디자인·소재 개발 지원

  ** 미국·이태리·중국 등 선진국 기업 투자유치 및 M&A 지원

ㅇ **변화되는 시장 환경에 따른 해외마케팅 지원**

- GAP, H&M, 유니클로 등 글로벌 의류브랜드와의 GP사업 추진
- 베트남, 멕시코 등 전략지역 內 물류센터 집중 지원
- 원활한 원료공급 등을 위한 글로벌 소싱 지원

  * 중국은 원사수출 제한 등을 통해 섬유원료 비축정책 실시 중

작 성 자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과장
◈ 뉴욕 무역관	김수연 과장
◈ 도쿄 무역관	박은희 과장
◈ 호치민 무역관	홍석균 차장
◈ 상하이 무역관	정연수 과장
◈ 자카르타 무역관	김은희 과장
	박건원 과장
◈ 통상지원총괄팀	오유진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5-009

TPP 협상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